

## 육우자조금,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이 동 일  
축산신문 기자

육우산업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육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 할 것이다. 육우는 쉽게 보면 고기소다. 肉자에 牛자를 합한 것이니 고기소로 풀이될 수 있다. 그렇다면 광범위하게 보면 고기를 생산하는 소 전부가 육우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육우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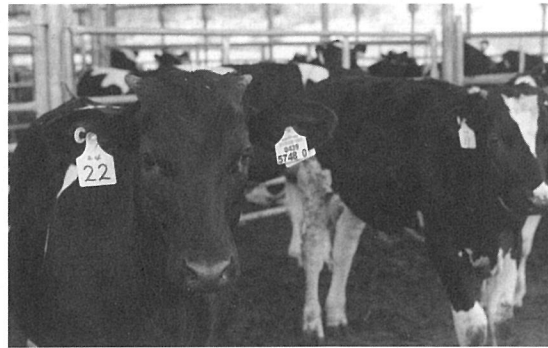
국내에서 사육되는 소는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된다. 한우와 국내산 젃소, 그리고 국내산 육우.

물론, 여기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국내산 육우다.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정을 시켜 송아지를 낳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반은 나중에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암소인 젃소로 성장하고 그 외 절반은 국내산 육우로 커나가게 되는 것이다.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육우는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육우다.

하지만 이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다. 매우 귀중한 국내산 쇠고기 자원이라는 점이다. 낙농산업의 부산물이라는 측면 때문에 이 같은 귀중한 국내산 쇠고기 자원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약하게 보이는 것이 육우 문제의 첫 번째 본질이라 생각한다.

육우의 연간 도축두수는 2011년 기준 9만4,000두를 기록했다. 전체 소 도축두수의 11%를 차지하고, 지육 생산량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중요한 쇠고기 공급자원인 육우가 낙농부산물이라는 측면 때문에 독립된 축산품목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육우시세는 최근 한우의 공급과잉과 수입쇠고기의 거센 공세로 인해 가격이 급락하고, 육우송아지의 경우 갈 곳을 찾지 못해 낙농가의 경영악화 또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육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우를 하나의 개별 축산품목으로 바라보되 낙농산업과의 연계성을 감안한 복합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쉽게 말해 소비자에게는 우리 육우가 우수한 국내산 쇠고기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동시에 정책적으로는 낙농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한우의 사육두수 증가세는 주춤하고 있지만, 육우시세는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육우 수요의 큰 몫을 담당하던 균 공급량 또한 언제까지 지속되리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을 필두로 한 축산강국과의 연이은 FTA, TPP 등은 국내 쇠고기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준다. 특히, 육우의 입장에서는 수입쇠고기 공급량의 증가는 매우 위협적인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언급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육우의 안정적 시장 소비처를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육우자조금이다. 한우의 경우 공급량이 증가해 전체적인 가격 하락이 발생하던 시기에도 육질 최고등급인 1++의 경우 가격하락의 충격이 약했고, 오히려 전체 공급량과는 별도로 고급육 출현율이 낮았을 때는 가격이 오르기도 했다.

한우 고급육이 시장 상황에 영향을 덜 받는 것은 별도의 소비계층이 확고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품질 면에서 한우만 못하다는 인식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가격적인 장점으로 극복한다면 차별화된 소비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육우에게 불가능하다고만 볼 것은 아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육우를 소비할 수 있는 별도의 채널이 없다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수입 쇠고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국내 소비자들의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급식의 경우 가격적인 부담으로 한우를 대신해 수입쇠고기가 식재료로 많이 쓰인다. 학부형이나 영양사들, 학생들에게 국내산 육우고기를 알리고 홍보한다면 수입육과 한우 보다 육우가 학교급식에 활용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품목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올해 3월이면 두당 1만2,000원의 육우의무자조금 거출이 시작된다. 육우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낙농과 양돈, 한우, 양계 등이 축산 의무자조금 도입으로 산업의 불륨이 한 차원 커졌다. 이들 산업의 모습처럼 육우의무자조금이 새로운 육우산업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돼 주길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육우의무자조금의 규모는 현재로서 10억 원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육우도축두수에 따라 결정되는 자조금 사업규모에 미리부터 실망할 필요는 없다. 당연히 타 축종에 비해 규모가 작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 자조금 사업의 규모를 떠나 그 자조금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할 테니까. 필요한 일을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해나가면 된다.

육우농가라면 누구나 자조금 사업에 거는 기대가 클 것이다. 과거 다른 품목에서 자조금이 시작될 때도 농가들은 높은 기대감을 가졌었다. 기대를 건다는 것은 그만큼 높은 관심을 갖는 것이고, 관심은 곧 애정이다. 본인이 우려하는 것은 높은 기대감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 보다는 육우의무자조금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갖는 것이 훨씬 걱정스럽다. 승패를 결정짓는 것에는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속돼 있는 구성원이 얼마나 소속감을 갖고 함께 노력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육우자조금은 다소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경영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육우농가들의 자발적 거출 참여는 요원해 보인다. 농가거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육우자조금의 사업규모가 지금의 예상보다 축소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미 말했지만 자조금 조성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본인은 일부의 부정적 인식이 전체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다.

육우자조금이 모든 것의 해답이 될 수 없다. 육우농가 스스로가 자조금을 통해 지금의 한계를 넘으려 한다는 시도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가야할 곳은 강 건너에 있다. 강이 넓고 깊다고 언제까지 퍼져앉아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헤엄쳐 건널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나무를 깎아 뗏목을 엮어야 한다. 뗏목은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았을 때 더 빨리 만들 수 있고,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강을 건너고 나서도 가야할 길은 멀다. 길은 멀다.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